

照明器具의 現代化는 가스燈

—電燈發明은 1880年 에디슨이—

燈火에 대한 史實은 옛날부터
이지만 電燈이란 器具가 發明됨
으로써 燈火史에 終止符를 찍게
되었다.

에디슨이 白熱電球의 特許를
얻은 것은 1880年이며 그는 다음
해 파리에서 열린 電氣博覽會에
이를 出品하여 世界를 놀라게 했
다. 그러나 그가 이 전등을 成功
시킨 것은 필라멘트의 材料를 대
나무로 만드는데 남보다 먼저 着
眼했기 때문이다. 그에 使用함
대나무는 日本 京都府八幅이란 곳
에서 生產되는 것이었다고 한다.

그러나 전등 이전의 등불은 15
50년에 이탈리아의 칼다노라는
數學者가 거름이 없는 램프를 발
명한 것이 시초이고 그 다음에는
프랑스의 製藥業者인 쿠엔케가 글
라스의 등外语를 1756년에 만들었
으며 1783년에는 스위스의 物理
學者인 알간이 筒形의 芯을 만들
었다. 이어서 1792년에는 매독이
라는 英國의 技師가 가스燈을 발
명함으로서 照明器具가 現代化하
기에 이르렀다.

體溫計의 發明은 1654년에

—水銀計는 獨逸의 엘레가—

患者用 體溫計의 처음 發明은
1654년에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였
으나 그 체온계는 氣體溫度計였다.
으므로 正確하지가 못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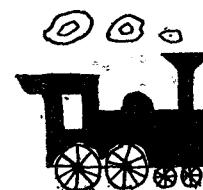
이보다 40년이나 앞서 1595년
에 갈릴레오·갈릴레이가 溫度計
를 발명은 했으나 물론 체온계로
는 사용하지 못했다.

그러는 동안에 1869년 獨逸의
엘레라는 사람이 水銀을 材料로
한 체온계를 발명하여 현재 보급
되고 있는 수온체온계가 만들어
진 것이다. 수온체온계의 特徵은
체온을 챈 다음 그 高溫에서 더 둘
려 있는 것이다.

原子核 中間子を 湯川0 發見

—1949年上課賞受賞理論—

原子核의 性質에 中間子라는
粒子가 있다는 學說을 發表한 것
은 日人 湯川秀樹이다.



發明小史

그는 1935年 原子核의 성질에 대하여 研究끝에 퀴리夫人의 리디움發見以來 원자핵에서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部分가운데 중간자라는 입자가 있다는 학설을 내놓았다.

그의 主張인즉 원자핵의 陽子
와 中性子사이에 그보다 작은 중
간자가 있어 그것이 오고 갈때마다
양자와 중성자가 서로 재빠르게 離化한다는 점입니다

이 학설은 헛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37년, 美物理學者 엔더슨이 實際로 중간자를 발견함으로써 湯川의 理論이 立證되었단다.

따라서 1949년에는 이 功勞로

노벨物理學賞을 受賞하기에 이른 것이다.

地下足袋와 브리지스턴 타이어

—보선신발장수가 大企業이 되기까지—

日人の 신발은 나막신(게다 : 下駄)과 地下足袋(지까다비)라 하겠다. 지금도 地方으로 잘 푸록 혼이 볼 수 있는 신발들이다. 그러나 이 신발이 日人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신들하게 들리겠지만 그 지까다비의 實用新案을 염은 石橋正二郎이란 사람은 브리지스턴 타이어 生產企業을 이루한 動機가 되었다.

石橋는 九州의 商業高校를 卒業한 타비(보선신발)집의 아들이며 40~50年 前의 일본은 作業用지까지다비가 한창 流行이었다. 그러나 그때만해도 천으로 만든 저까다비이기 때문에 非經濟의이었을은 말할나위 없었다.

그래서 이같은 缺陷을 고쳐 보자는 構想이 그 兄인 德次郎으로부터 提案되었고 그 방법은 지까다비에 濕氣가 차지 않도록 신바닥에 고무를 데어 보자는 것이다.

이 구상에 합意한 그들은 실용
신안으로 出願했고 權利를 얻은
다음에는 생산을 개시하자 農夫나
막일꾼들의 人氣가 대단하여 첫
해에 50萬ヶ례가 팔렸다.

이만큼 팔리게 된 것은 실용선
안권이란 防禦手段 때문에 다른企
業들이 손을 끼지 못한 까닭이다
그리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12천
단위로가 팔린 덕분에 브리지스
턴타이어란 大生產企業으로 成長
한 것이다.

❖ ❖ ❖